

종로학원 선배의 재수 성공 가이드

연세대학교(원주) 의예과 이준형



작년 수능 날 첫 수능이어서 긴장한 나머지 제가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의대에 진학하기 위해 노력해왔기에 제 꿈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 재수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재수를 하는 데에는 많은 돈과 시간을 쓰기 때문에 최대한 돈과 시간을 아껴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타 재수학원들과 비교했을 때 종로학원이 가장 괜찮은 학원이라 생각되어 종로학원을 저의 재수학원으로 선택하게 되었고 이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1학기(~6월 모의평가)

첫 재수를 결정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시기로 가장 힘이 덜 드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중간에 보는 모의고사 점수에 많이 연연해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수능은 장거리 마라톤과 같으므로 자신의 모의고사 점수에 자만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공부에 매진해야 합니다. 우선 학원교재와 수업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기초를 쌓아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무작정 문제풀이식의 공부법을 지양하면서 개념을 공부해야 합니다. 학원 수업을 필기할 수 있는 개인 노트를 준비하고 수업이 끝난 후 반드시 그 노트필기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말과 같이 자습시간이 많은 날을 복습의 날로 정해 그 주에 배웠던 내용들을 복습하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복습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과목에 더 많은 공부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학원에서 나누어준 시간표를 활용하여 해결했습니다. 시간표를 계속 정리하면서 공부해나가다 보면 어느새 자투리 시간까지 잘 활용하고 있는 본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학기(6월 모평~9월 모평)

6월 모의평가 점수에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열심히 공부했다라도 자신이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아 초조해 하거나 너무 점수가 잘 나와서 우쭐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의평가는 수능의 지표일 뿐 수능 그 자체는 아닙니다. 저 또한 6월 모의평가 때 제가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아 크게 실망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한 제 마음을 다독이며 다시 공부에 열중했습니다. 그 결과 수능에서 만족할 만한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의 평가 점수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자신의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마음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정리했던 개념들을 다시 훑어보고 기출문제를 맛보아야 합니다. 부족했던 개념들을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를 못 풀더라고 쉽게 포기하거나 풀이를 보지 않고 최대한 스스로 풀어보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고통스럽더라도 한 문제 한 문제 이런 방식으로 풀어나간다면 엄청나게 발전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파이널(9월~수능)

이 기간에는 긴 공부에 지친 수험생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무리하지 않고 가끔씩 한 달에 한번은 휴식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컨디션 관리를 하면서 실제 수능 상황을 연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평일에 시간이 충분치 않아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주말에는 수능처럼 실전 모의고사를 보는 것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전 모의고사를 보면서 수능연습을 하고 개념 정리 노트를 보면서 자신의 지식을 총정리합니다. 저는 더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것보다는 자신이 틀렸던 부분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과목은 수능 2주 전부터 학원에서 하는 파이널 특강을 통해 공부하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능 컨디션 관리

사실 저는 수능 고득점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수능 컨디션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 수능 한 달 전부터 수능 시간표대로 생활했습니다. 절대로 수능을 보는 시간에 자서는 안 되며 너무 졸리면 수능이 끝난 시간 이후에 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능 보기 하루 전에는 공부하기보다는 충분한 휴식을 갖고 일찍 자 수능 당일 날 최상의 상태로 수능을 보도록 합니다.